



주간통일정세 2009-03(2009.01.12~01.1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0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군부대·유원지 시찰(1/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북한군 제2752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시찰하고 평양 룡약산유원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군부대 시찰엔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유원지 현지지도엔 장성택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주규창,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 룡약산(해발 292m)은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며, 룡약산유원지는 2006년 9월께 완공

● 김정일, 평양 제사·깍공장 현지지도(1/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제사공장과 평양깍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평양제사공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평양제사공장은 명주실 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장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이어 통일거리에 새로 건설된 평양깍공장을 방문, 생산시설과 깍 생산공정 등을 세세히 살펴보고 “깍은 누구나 즐겨 찾는 기호품의 하나”라며 “깍을 하나 생산해도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구미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
- 현지지도에는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과 주규창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중기공장들 시찰(1/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포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금성트랙토르(트랙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그는 이들 공장 시찰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지금 더 많은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들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후 맨주먹으로 폐허를 가시고 부강조국을 일으키던 정신으로 “과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할 것을 강조
- 그는 또 “우리 당과 조국이 걸어온 노정은 자력갱생의 투쟁사”라며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



는 열쇠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데 있다”고 ‘자력갱생’도 역설

- 현지지도에는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주구창, 리재일 제1부 부장들이 수행

● 김정일, 3남 정운 후계자 지명설(1/1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1984년생)을 낙점하고, 이러한 결정을 담은 ‘교시’를 1월 초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정보 소식통은 15일 “김정일 위원장이 1월 8일께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세번째 부인 고 고영희씨에서 난 아들 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 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을 전달한 데 이어 각 도당으로까지 후계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있으며, 고위층을 중심으로 후계자 결정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언
-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 낙점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조직지도부 등 고위층에서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며 “정운의 내정 사실을 아는 권력층에선 그에게 줄을 서는 상황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정운이 후계자로 결정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와병 이후 권력 2인자로 급부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김정일 위원장의 매제, 정운의 고모부)이 ‘후계자 후견인’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 정운은 90년대에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으로 귀환해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5년제)을 다니며 “주체의 영군술(領軍術)”을 중심으로 배웠으나 노동당이나 군에서 특별한 공직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위원장의 성격을 빼닮았다는 그는 김 위원장의 세 아들중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김 위원장의 통치구호인 ‘선군정치’ 선전에 앞장서면서 가끔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등에 동행하기도 했으며 현철해 대장 등으로부터 군관련 수업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짐.

● 北 장성택 중심 집단지도체제 준비(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그의 장남인 김정남(金正男)을 형식적으로 원수로 하고 김씨 일족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등 3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
- 신문은 이런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중심인물은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張成澤) 노동당 행정부장이며 후계 체제는 실질적으로 장씨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장 부장은 인척 관계를 무기로 김 위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 부인인 김경희와 함께 김정남의 후견인으로 지위를 굳혔으며 장 부장의 형제 2명도 조선인민군 최고 간부로 있는 것을 이용해 군부 장악력도 높였음.
- 노동당 지도부에는 장 부장 이외에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측근으로 유일하게 동석한 김양건 통일부장이 주목하고 조선인민군에서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명수·현철해 대장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이들 모두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지난해 김 위원장의 증병설이 제기된 이후 실체가 공개됐다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北, 도덕교과서 ‘집필기준’ 변경 비난(1/17, 연합뉴스)

- 북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남측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기술을 빼도록 한 것과 관련, “동족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비난

● 北, 최고인민회의의 지역·부문 선거투 구성(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와 군사부문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통신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 시행세칙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돼 사업에 착수했다”며 “무력 부문에도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됐다”고 보도, 북한은 앞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었음.

* 도, 시, 군 선거위원회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조직하며 통상 9~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北교육성, 정치사상교육과 정보화 강화(1/1, 교육신문)

-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정치사상 공세를 드세차게” 벌일 것을 강조한 데 맞춰 북한 교육성은 올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보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교육신문 1월 1일자에 따르면 김영인 북한 교육성 부상은 기고문에서 “올해 새 세기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해 “전반적 교육사업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 일반교육 체계와 고등교육의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력평가 방법



을 개선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조건 보장사업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北, 일심단결·자력갱생 거듭 강조(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진격의 나팔소리 천만심장 울린다'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에서 1950년대 천리마운동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때를 털어버리면서 사회주의 대문을 세운 진격전"이었다면 "강선(천리마제강의 옛 이름)에서 또다시 울리는 대고조의 나팔소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세우기 위한 총공격 정신"이라고 강조
- 신문은 현재 북한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현대화의 문을 열고 강성변영의 궤도 위에" 들어선 "정치사상 강국, 일심단결의 강국,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최강의 정신력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하나를 가지고도 열백을 만들 줄 아는 창조자들의 대부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 **北, 12기 대의원 중앙선거위 구성(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될 제12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부위원장에 김종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 서기장에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을 각각 임명하고 지난 6일 이를 공식 발표
- 또 중앙선거위 위원에는 주상성 인민보안상,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로성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정태근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김지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선정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지난 1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12기 대의원 선거를 3월8일 실시한다고 결정

다. 경제 관련

● **국제NGO, 대북사업 '활발'(1/17,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구호단체 '월드 비전'은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황해북도의 '치봉'이라는 마을에서 새로운 인도주의 사업을 펼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 월드 비전의 빅터 슈 북한 담당 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 황해북도의 한 농촌 마을을 지원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치봉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었다”며 “주민 수 약 1만명의 치봉 마을에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학교와 보건소 개보수, 마을 전체에 대한 식수 공급, 어린이들에 대한 두유와 빵 공급 등을 하게 된다”고 발표

-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미국의 유진벨 재단은 북한의 병원 3곳에 대해 발전기와 의료기기 지원사업 2차분을 진행할 계획임.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은 올해 북한에 결핵 약을 지원 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이미 40t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영양제와 약, 의료기구, 고기 통조림, 온실용 비료 등 을 지원 1차 선적분을 1월 초에 보냈으며 올해 북한은 결핵약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결핵약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매진
 - 또 미국 오리건 주에 본부를 둔 국제 지원단체 머시 코어는 미국 정부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사업과 병원 발전기 사업, 수 년 간 지속해 온 과수원, 양어장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대북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경우 올해 북한에서 재난관리 사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 실시할 계획임.
- **北, 2월 과학 영농 보급 발표회 개최(1/10; 1/16, 노동신문)**
 -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영농의 과학화를 강조한 가운데 2월 농사분야 과학기술 발표회와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
 - 노동신문 10일자는 ‘기대되는 발표회, 전시회들’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6년동안 진행된 과학농사 도입 사업의 성과를 보급”하고 “올해 과학농사 도입사업 방향과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성과 발표회가 2월 26-28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1/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먹는 문제 해결의 “절박”함을 지난해에 이어 거듭 강조, 방송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식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지적, 방송은 또 남한의 지원이 중단된 비료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균중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농촌에 지원해야 하며, 종자혁명·이모작·감자 및 콩농사, 농산과 축산의 배합, 수산물 생산과 재배어업 및 양어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
 - **베트남 통신회사, 북한 진출 추진(1/15, 사이공해방일보)**
 - 베트남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비에텔이 북한 진출을 추진 중이라



고 관영 사이공해방일보가 15일 보도, 비에텔은 투자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

● **영국 감리교단, 北식량난 지원(1/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겨울철 식량난을 덜기 위해 영국 감리교단이 5,000유로(미화 6,600달러)를, 호주 외교통상부가 375만호주달러(미화 250만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 감리교단의 스티브 피어스 아시아 태평양 협력관은 “겨울을 맞은 현 시점이 북한 주민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서 이 돈이 “북측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운영하는 라면공장과 빵공장, 온실 관리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
- 익명의 호주 관리는 “겨울철인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2008년 12월 24일 결정한 예산을 곧 집행하기로 했다”며 “세계식량계획(WFP)에 200만,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00만, 적십자사에 75만 호주달러가 각각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北, 종합시장 폐지 연기(제261호, 오늘의 북한소식; 1/14,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상설시장 성격의 ‘종합시장’을 폐지하고 농산물 위주의 10일장격인 ‘농민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지난해 말 예고했으나, 시장을 없앨 경우 부작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편 시점을 6개월 뒤로 늦췄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4일 주장
- 이 단체는 ‘오늘의 북한 소식’ 제261호에서 시장 개편 유보 방침에 대해 평양의 한 간부는 “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방 관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언
- 평남 성천군의 한 간부는 “배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배급을 주는 데는 없고 시장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 중앙에 무수히 쏟아졌다”고 말했으며, 특히 다른 간부는 “현 시점에서 종합시장을 폐지하면 내란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또 다른 간부는 “중앙당도 무리하게 감행하기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정을 지켜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식지는 소개

● **北, 전력증산위해 화전에 주력(1/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력공업성은 올해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 화력 발전소의 전력 증산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은 이날 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전력 공업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생명선”이라며 “전력공업 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지퍼 올려야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 올 수 있다”고 강조

- 그는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소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석탄 소비를 낮추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
연합기업소에 석탄을 집중적으로 대궐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
이겠다”고 소개

● **WFP, 北 대부분 지역서 식량배급 중단(1/13, 연합)**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
받지 못하는 등 식량과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북한의 대부
분 지역에서 식량배급을 하지 못한 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아동과
산모, 수유모에게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WFP 방콕사무소 폴
리즐리 대변인이 13일 밝힘.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까지만 정상적으로 식량을 배급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나눠줄 식량이 없어 북한 내 WFP 활동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라고 언급함.

● **北, 명산·특산물 605종 지정(2008년 6호, 과학원통보)**

- 북한은 산나물, 산열매, 약초, 곡물, 채소 등 지역별 명산물과 특산
물을 모두 605종 지정, 보호·이용하고 있다고 격월간 과학학술지
‘과학원통보’ 2008년 6호가 보도
- 과학원통보는 2007년 말 제출된 ‘우리나라(북한) 명산물, 특산물의
지방적 분포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 황해북도가 102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함경북도(66종), 평안남도(65종),
평양시(각 62종), 강원도(57종), 평안북도(56종), 함경남도(54종),
량강도(42종), 자강도(36종) 순이라고 밝힘.

● **2008년 北 무기수출 반등...1억弗 상당(1/12, 연합)**

- 2008년 북한의 무기 수출량이 반등, 총 1억 달러 상당을 중동·아프
리카·중남미 등의 일부 국가들에 판매한 것으로 12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작년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가 1억달러 수준을 기
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수천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연간 무기 수출액이 작년에 일
부 회복된 셈”이라고 언급

라. 군사관련

● **北매체, 총참모부 ‘성명’ 반복 보도(1/17, 1/18, 조선중앙통신; 조선
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매체들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17일 대남 “전면적 대결 태세”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복해서 보도



하고 공장·기업소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반향’을 잇따라 소개, 내부 결속력 강화에 활용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오후 4시49분, 조선중앙TV와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대외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오후 5시에 각각 총참모부 성명을 처음 보도한 이후, 북한 방송들은 1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계속 재방송을 송출, 노동신문과 민주조선도 18일 ‘성명’ 전문과 주민들의 ‘반향’을 3면에 각각 게재

● **北총참모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할 것(1/17,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TV)**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면대결태세 진입”에 따라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한계를 모르는 무자비한 타격력과 이 세상 그 어떤 첨단 수단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단호한 행동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조선중앙TV에서는 군복을 입고 대좌 계급장을 단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성명을 발표해 이번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줌.
-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역적패당들의 반공화국 적대감 고취와 임전태세 강화에 따른 북침전쟁열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섬멸적인 징벌로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서해 우리 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총참모부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조선 서해해상에서 매일 같이 계속되고 있는 괴뢰 해군함정들의 우리측 영해침범행위와 여러가지 군사적 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우리를 노린 북침전쟁연습은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
-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을 거론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협력으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했다”며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제 스스로 택한 동족대결의 길이 우리의 총대 앞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며 “민족을 등진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고 덧붙임.



- **항일빨치산 출신 김익현 차수 사망(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항일 빨치산’ 세대 막내로 ‘혁명 1세대’로 분류되는 김익현 차수가 사망,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차수 김익현이 오랜 병환끝에 15일 19시에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조화를 보냈다고 보도

- **北노농적위대 창설 50돌 보고회 개최(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민방위 조직인 노농적위대 창설 50돌(1.14) 기념 중앙 보고회를 열고 노농적위대에 대해 “군사적 임무 수행”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보고회에는 김영일 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격식 북한군 총참모장, 군과 성 및 중앙기관 간부들, 평양시 노농적위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도 전달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보건부문, 생산현장서 의료봉사(1/18, 조선신보)**
 - 북한 보건부문의 의료 종사자들이 금속, 전력, 석탄 등 주요 경제부문의 생산현장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18일 신문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 병원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병원과 평안남도 인민병원의 의료일꾼들은 지난해 연말 이후 북한에 불기 시작한 ‘제2의 천리마운동’ 발원지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에 나섬. 신문은 또 의료일꾼들이 생산현장에 ‘위생초소’를 만들어 놓고 건강검진 사업을 펼쳐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있으며 고려약(한약)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

- **새해 첫 세 쌍둥이 출생(1/17, 조선중앙통신)**
 - 평양산원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소개, 세 쌍둥이는 모두 여자아이며 산모는 인민군 군관(장교)의 아내라고 통신은 보도, 지금까지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세 쌍둥이, 네 쌍둥이는 383쌍이라고 통신은 소개

- **김일성전집 제78권 출판(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김일성전집’ 제78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이 책에는 198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일성 주석이 했던 연설과 담화 38건이 수록되어 있음.

- **北대학생, 방학맞아 ‘사회정치 활동’(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기업소와 농촌을 찾아가 “사회정



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통신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의학대학을 비롯한 “수도(평양)의 10여개 대학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새해 첫날부터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고 있다”고 소개

● 北 초등교사, 컴퓨터·외국어 열공(1/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전국의 보통교육 부문 교원, 교양원을 위한 2009 ~ 2010년도 1학기 교수강습이 시, 군들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학교 부문에서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의 수준을 올리는” 방안이 다뤄졌다고 보도, 북한은 2008년 소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시작
- 컴퓨터 교육의 모범학교로 지정된 평양 서흥소학교에서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내의 모든 소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갖고 있음.
- 조선신보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강습을 위해 행정구역을 단위로 교원(교사) 재교육 강습소가 세워져 있고, 실력이 높은 교원을 강사로 출연시키는 정연한 체계가 꾸려져 있다”며 “강습은 중학교(중고교 과정) 부문, 소학교 부문, 유치원 부문으로 나뉘어 과목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北, 공무원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제261호, 오늘의 북한소식; 1/14, 좋은벗들)

- 북한 평양에서 2008년 12월 중순 휴대전화망이 개통됐지만 노동당과 내각, 법관 등 공무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유한 일부 주민이나 “무역 일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4일 주장, 소식지는 북한 당국이 “국가 기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휴대전화의 통화 가능 지역도 평양시에 국한됐으며, “평양에서 외부 지역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평양으로 걸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

● 北, 국제기구와 AI예방 협력 강화(1/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3일 보도

● 평양 사동구역서 진도 3.3 지진(1/11, 조선중앙TV)

- 지난 9일 오후 8시 54분 10초에 북한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 일대에서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
- 중앙TV는 “지진이 일어난 곳은 북위 38도 59분, 동경 125도 56분으로 평양시 중심부에서 볼때 16km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가



고 지진이 일어난 깊이(진원)는 10km정도”라며 “광복거리나 통일 거리 그리고 평양시 중심부에 있는 여러 구역들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 지진을 약 2초동안 느꼈다”고 밝힘.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시료에서 농축 우라늄 검출(1/15,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이 미국 정부에 핵 관련 시료로 제출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에서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폴라 디셔터 미국 국무부 검증·이행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
-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2002년에 한 번 인정한 이후 부정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시 중, 북한은 2007년 미국 정부 당국자를 군사시설에 초대해 알루미늄관을 일반적인 무기 제조에 사용했다고 설명했고 그 중 일부를 시료로 제출했었음. 그러나 디셔터 차관보는 요미우리에 “예기하지 못했던 상당한 양의 우라늄 입자가 부착돼 있었다”고 설명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요원이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씨도 미국 정부로부터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알루미늄관에서 발견됐으며 미 정보 당국은 이것이 3년 반 전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언
- 요미우리는 이 우라늄이 북한 내에서 농축됐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북핵과 관련한 첫 물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북핵단장, 北불능화 협의차 방북(1/13,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이끄는 남측 실사단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중 하나인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평양을 방문, 외교 당국자는 13일 “황 단장이 불능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미사용 연료봉 구매 협의를 위해 14일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15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돌아오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미사용연료봉은 구부리거나 매각해 불능화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실사단은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앞서 기술적·경제적 측면들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
- 실사단은 황 단장 외에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 각 1명, 한국원자력연구원 2명,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영변을 방문, 우리가 미사용 연료봉을 구매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할 예정임.



나. 북·미 관계

- **北,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1/17, 북한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며 “설사 조(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조·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밝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핵포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그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도 수 십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끄떡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

- **라이스, ‘北 무기급 HEU’ 언급 주목(1/14, 연합)**
 - 라이스 장관은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12일 인터뷰에서 “정보 당국은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무기급 HEU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일단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HEU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임.
 - 하지만 라이스 장관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HEU를 ‘무기급’이라고 특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그동안 북한의 HEU 기술은 핵무기를 제조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조악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미 정보당국이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수 있다는 것임.

- **北, 美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1/15, 연합)**
 -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책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의 선결조건의 하나”이자 “미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며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거듭 요구
 - 신문은 “미국은 지금까지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조



선 문제에 개입”해 왔다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북한)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평화협정을 체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 北·美 ‘원칙 대 원칙’ 일합(1/13, 연합)

- 북한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의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핵폐기’ 원칙을 주장하자 클린턴 후보자와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선 핵폐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의 원칙을 강조
- 우선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비핵화를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역설
- 힐러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등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 입장을 분명히 함.
- 국무부 손 매코맥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미국을 포함해 나머지 국제사회와 더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6자회담 하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 북한은 6자회담을 끝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비핵화된 한반도도 성사될 것”이라고 언급

● 美, 北의 김계관 방미 요청 거절(1/12, 연합)

- 북한이 20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계기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측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12일 “북측이 지난달 중순께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계획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관이 밝힌 2008 북중관계(1/17,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북중관계 ‘10대 사변’을 발표
- 북중관계 10대 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한 사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간의 구두친서와 축전 교환, 두 번째 사건은 김 위원장이 작년 3월1일 류 대사의 초청으로 중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것을 두번째 사건으로,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방북을 세번째 뉴스로 선정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은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과 관련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개막식 참석과 평양에서 열린 성화봉송행사를 각각 네번째와 아홉번째 '사변'으로 평가, 또 국제무대에서 북중 양국의 협력을 여섯번째 뉴스로 지적하면서 북측은 대만, 티베트, 올림픽 등에서 중국을 지지했고 중국은 6자회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면서 회담의 긍정적 진전을 이끌었다고 설명, 일곱 번째 뉴스는 북중 양국간 경제무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꼽음. 다섯 번째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의 110회 생일과 방북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양국이 공동으로 가진 것을, 중국의 TV드라마가 북한TV에서 방송되고 북한 '피바다 가극단'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등 문화교류에서의 진전을 여덟번째 '사변'으로 꼽았고,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때 북한이 10만달러를 지원하고 사상자를 애도하는 추모사이렌이 평양에서 울려 퍼진 것을 열번째 뉴스로 선정

● 北출신 신세대 화교, 中이주 증가(1/16, 자유아시아방송)

-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던 북한의 신세대 화교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귀환하지 않고 중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일년에 한차례 중국의 친척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 최고 9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 입국하며, 이 체류기간이 지나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90일간 더 머물 수 있지만, 총 180일을 넘기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음. 그러나 북한 화교들의 중국 정착 역시 쉽지 않다고 RFA는 보도
- 중국에 정착하려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민증이 필요한데,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중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중국 공민증을 취득할 수 있어 공민증 취득 전에는 무국적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 출신 화교들이 중국 공민증이 없다고 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RFA는 보도
- RFA는 중국에 이주하는 북한 출신 화교들이 늘어나고 북한 주민과 결혼한 화교의 자녀는 북한 공민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화교 2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광복 이후 최고 6만명에 이르던 북한 화교의 수는 2000년 당시 6천명 가량, 현재는 그보다 더 감소한 5천명 이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北 당 국제부, 中대사관 초청 연회(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국제부에서 15일 설을 앞두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북측에서 박경선, 김태중 국제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대사관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관계



자들이 참석

- 앞서 13일에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이스마일 아이마트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연회를 개최했음.

● **北고위간부들, 中영화 감상회(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위간부들은 15일 중국 산서영화촬영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영화 ‘따뜻한 정’을 감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린 이날 영화감상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근로단체·성·중앙기관·문예·언론계 간부들, 류샤오밍(劉曉明) 대사 등이 참석

● **中외교부, 北·中 교류·협력 확대 합의(1/13, 연합)**

- 중국은 북한과의 수교 60주년이자 양국간 ‘우호의 해’로 지정된 2009년을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데 북한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13일 보도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9~12일 방북 기간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고 밝힘.

● **北외무상, 中외교부 대표단 면담(1/12,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12일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마약밀수혐의’ 일본인 5년만에 석방(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해 5년 넘게 억류해온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의 사와다 요시아키씨를 “인도주의적인 조치”에 의해 석방하고 출국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국제법에 어긋나게 마약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하여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 억류됐던 전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부장 사와다 요시아키가 공화국 해당기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의하여 13일 출국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 2003년 사와다 요시아키가 북한 사람을 매수해 제3국에서 마약을 입수케 한 뒤 북한의 ‘만경봉-92’호를 이용해 일본으로 밀수하려 했다고 사와디씨 체포 사실을 발표했었음. 일본 정부는 이



듬해인 2004년 1월 외무성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 사와다씨의 송환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했지만 불발에 그침.

3. 대남정세

● 제주감귤·당근 북한보내기 계속 진행(1/18,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제주산 농산물과 농업기자재의 대북 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발표
- 고 총장은 특히 “북측으로부터 제주 농산물을 보내는 화물선에 동승하는 우리측 물품인도요원 3명에 대해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며 “그들의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고 총장은 다만 “북측에 전달할 물품을 중국 화물선인 헤이허호(4천t급)에 선적하는 작업이 다소 지연돼 당초 18일 오후로 잡았던 출항시간을 19일 낮으로 늦췄다”고 설명

● 중소기업중앙회장, 개성공단 일감없어 무급휴가 속출(1/18, 연합)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현황을 묻는 말에 “경제 위기로 대기업 납품이 줄어들어 개성공단 출입 등에 대한 북한의 통제까지 강화돼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 공단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 북한 직원들을 수 백명씩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 북한측 입장에서든 문제다.”라고 언급

● 2008년 남북교역액 1.2% 증가(1/16, 통일부)

- 2008년 남북교역이 남북관계 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요인 속에 1%대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됨.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남북 교역액은 18억2천37만달러로 2007년에 비해 1.2% 증가
- 통일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북한 물자 수입량이 감소한 점, 한 해 동안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없었던 점,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연간 교역액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 아울러 지난해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 교역의 비중은 22.4%로 2007년의 18.3%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일반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서 21.9%로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통일부는 분석

● 평양에 제주흑돼지농장 조성(1/15, 연합)

- 제주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07년 11월 제4차 제주도



민 평양방문 당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협력증진 방안으로 처음 논의했던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돈장 내부기자재(2억2천만원 상당)를 16일 북한으로 보냈다고 15일 발표

● IT방북단, 2월 대규모 방북(1/15, 연합)

- 남한의 정보기술(IT)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IT방북단이 2월 7일부터 11일 북한을 방문, 북한측과 정보기술 교류협력 증대 방안을 협의
- (사)남북IT교류협력본부가 80명으로 구성한 방북단은 2월 7일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평양정보센터, 금성학원 등 북한 IT 시설 시찰,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참관,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전시회’, ‘IT 학술지 및 도서 전달식’, ‘IT협력 활성화 전문가협의회’ 등의 일정을 갖고 특히 남한 IT 서적 4천권과 학술지 1천권 등 IT도서 5천여권을 북측에 전달
- 방문단에는 (사)남북IT교류협력본부 회장인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유완영 유니코텍 코리아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와 교육성이 교류행사에 참여

● 금강산 북측 접대원들 철수않고 대기중(1/13, 연합)

- 1월 6일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박창일 신부(평화3000 운영위원장)는 13일 “현지에서 현대아산 직원 등 우리쪽 사람들로 부터 전해들었다”며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북측 접대원들은 인근 고성지역 출신 뿐 아니라 평양에서 온 접대원들까지 아무도 철수하지 않고 관광이 재개되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합니다.”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은 새해 들어 금강산 관광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더라”고 덧붙임.

● 개성공단 생산품 ‘피스웍스’상표 단다(1/12, 연합)

-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해 ‘피스웍스(Peace works)’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 조만간 상표 등록을 하기로 함. 정부 당국자는 12일 “개성공단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현재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등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
- 정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은 ‘Peaceworks’는 ‘평화활동’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의미를 담았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언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신고 플루토늄 모두 무기화” <방북 美학자> (1/17)

- 북한이 6자회담 비핵화 과정에서 신고된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고 셸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이 17일 밝혔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해리슨은 이날 베이징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북한관리들로부터 북한이 이미 30.8kg의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는 4개에서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해리슨은 이어 북한 관리들이 무기화된 30.8kg의 플루토늄은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군축에 대한 약속을 언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해리슨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관계개선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과 미국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북한 관리들의 말이었다고 소개했다. 해리슨은 지난 12일부터 북한을 방문, 리근 외무성 미국 국장 등 북한 관리들과 만난 뒤 이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 북한 관리들은 또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 이 사실(플루토늄 무기화)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검증 활동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있는 핵무기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슨은 소개했다.
- 해리슨은 자신이 소개한 북한의 ‘플루토늄 무기화’ 관련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지만, 북핵 협상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느꼈다면서 “(6자회담의)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이어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의 대가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리슨은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는 한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해부터 건강 위기설이 제기돼 온 김정일 북한위원장의 현재 상태와 관련, 해리슨은 북한 관리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전처럼 하루종일 일정을 소화하지는 않는 것 같다



는 견해를 밝혔음.

- 해리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박의춘 외무상과 리근 국장을 비롯, 김용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상장)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음.

● “北 시료에서 농축 우라늄 검출” <日紙>(1/15)

- 북한이 미국 정부에 핵 관련 시료로 제출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에서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플라 디셔터 미국 국무부 검증·이행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 15일 보도했음.
-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2002년에 한 번 인정한 이후 부정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음. 알루미늄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원심분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의심해 왔음.
- 북한은 2007년 미국 정부 당국자를 군사시설에 초대해 알루미늄관을 일반적인 무기 제조에 사용했다고 설명했고 그 중 일부를 시료로 제출했음. 그러나 디셔터 차관보는 요미우리에 “예기하지 못했던 상당한 양의 우라늄 입자가 부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요원이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씨도 미국 정부로부터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알루미늄관에서 발견됐으며 미 정보 당국은 이것이 3년 반 전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 우라늄이 북한 내에서 농축됐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북핵과 관련한 첫 물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힐 “난타전 6자회담 진전 있었다”(1/15)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난타전’(slugfests)이었지만 진전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14일 평가했음. 힐 차관보는 이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기반 핵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시킨 점을 진전 혹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핵개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며 북한을 지목한 뒤 “외교에서 추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위기 보다는 문제인 상태에서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매우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다룰 수 있는 틀이 있는 문제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2005년부터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일을 맡아 온 그는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음.



● 美 핵전문가 “北, 핵 밀거래에 관여”(1/13)

- 미 국무부가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 등 핵개발 관련자들에게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파키스탄, 이란의 핵 밀거래를 막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3일 “이번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10여명은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 등지의 허브를 통해 여전히 (핵거래에) 관여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음.
-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이란은 자체 네트워크를 세워 이를 오랫동안 활용해왔으며, 북한은 의심되는 나라들과의 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다만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대결적인 접근 방식인 제재보다는 다른 국가 및 기업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음.

● 부시, 北 HEU 핵개발 가능성 거듭 제기(1/12)

-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지적하며 북한 당국에게 핵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검증조치를 허용할 것을 거듭 주장했음.
-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고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라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HEU)을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북핵 6자회담에서 강력한 검증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력한 검증조치를 허용기로 한 합의사항을 존중,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北신문, 퇴임 앞둔 美 부시 비난(1/18)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가진 고별 기자회견과 대 국민 연설에서 재임중 좌절을 겪었고 일부 실수도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자기가 실시한 정책들의 오류를 변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죄 많은 자의 구차스러운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고별 회견(12일)에서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WMD)를 이라크에서 찾아내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



은 “부당한 정책과 반테러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은 “퇴임 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며 “지금 미국의 적지 않은 단체들 또는 개인들이 전쟁범죄, 인권범죄 등의 조항으로 형사소송을 준비하며 단단히 버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전임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의 퇴임시에는 특별한 논평이나 비난 글을 내놓지 않았음.
- 부시 대통령은 고별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골칫거리”라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었음.

● 北리근 “美와 미사일 협상 용의” <VOA>(1/18)

- 최근 방북해 북한 관리들을 만난 셸리그 해리스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제한 협정에 관해 협상할 것임을 북한의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이 인정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 지난 12일부터 5일간 방북했던 해리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보다 좋은 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면 미사일 협상도 안될 게 없다는 것이 리근 국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리 국장은 “북한은 여건이 바람직할 때 미사일 협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미사일 협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호 신뢰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리스 국장은 덧붙였음.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핵협상 외에 미사일 제한 협상도 매해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美, 北붕괴시 북핵안전확보에 중점(1/17)

- 미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임을 시사하는 언급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방부 고위직 지명자들로부터 나왔음.
- 윌리엄 린 미 국방부 부장관, 미셸 플라우노이 정책담당차관 지명자는 15일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맞춰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음.
- 린 부장관 지명자는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기술·물질·시스템의 확산은 미국은 물론 아시아, 전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야욕은 이런 상황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린 지명자는 또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맹, 지역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미군의 전진배치가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서 “미국의 국가능력 또한 이런 위협을 억지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은 관리가 소홀해진 핵무기와 핵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린 부장관 지명자는 임명되면 로버트 게이츠 장관에 이어 국방부내 서열 2위가 됨. 린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은 ‘작전 계획 5029’를 비롯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국이 마련중인 제반 대책의 초점이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통제권 확보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됨.

- 한편, 린 지명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한미간에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게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인 전쟁억지를 위한 핵심사항”이라면서 “일본과의 동맹도 아.태지역 안보와 안정에서 중대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린 지명자는 또 한국군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한국군과 미군은 2012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한 동맹합의를 완수해 나가는 중”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군이 한국 방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12년 전작권 이양방침을 거듭 확인했음.
- 플라우노이 지명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그로 인한 북한에서의 권력교체 가능성과 관련, “우리의 대비책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유지하도록 준비하고, 한국을 방어하며, 북한으로부터 WMD나 다른 위험한 기술들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음. 이와 함께 두 지명자들은 공식 임명되면 지난 2005년 중단된 북한지역에서의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발굴작업도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NYT “北 발표방식 이례적..전문가들 우려”(1/17)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발표를 통해 17일 한국 정부에 대한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그 발표 방식이 이례적이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해 무력위협 발언을 하는 수위를 높여왔지만 이날 위협이 이례적이라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는 것은 그 방식에 있다면서 군복을 입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통상 북한은 매체를 통해 성명문을 내놓거나 종종 발표자가 성명을 읽기도 하지만 군복을 입은 군인에 의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 신문은 북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협상의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은 동맹국인 한.미를 이간질하려 하고 요구를 늘리거나 위협을 제기함으로써 득을 보려 했다고 설명한 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북핵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지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나선 것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문제도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문은 이와 함께 북 외무성이 미국에 대해 선(先)대북 핵위협 제거를 요구하는 발표를 한 것도 소개하고 오바마 새 정부와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놓았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
-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별도 성명에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면서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 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미국의 보수 논객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멜라니 커크패트릭 논설위원은 이날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틀로 6자회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 성과가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 北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1/17)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며 “설사 조(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조.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밝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핵포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도 수 십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끄떡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미국이 조미관계 정상화를 우리 핵포기의 대기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선 핵포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관계정상화를 마치 우리에게 주는 선사품인 것처럼 여기는 미국의 대국주의적 근성의 발로이고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 “北.美 ‘풋볼’외교 추진”<RFA>(1/17)

- 북한 축구팀이 미국을 방문해 프로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 미국에서 태권도를 전문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인 ‘태권도타임스’의 정우진 회장은 17일 “북한 축구팀이 올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프로 축구팀인 LA 갤럭시와 경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코치가 은퇴할 때까지 선수생활을 해 익숙한 팀으로 AC밀란에서 임대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꽃미남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소속돼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정 회장은 “이번에 오는 북한 축구단은 숫자도 많아 30~40명이 오게 되지만 나이키가 후원하겠다고 하니까 돈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된다”며 “미국의 운동용품 제조업체인 나이키가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북한 축구팀의 미국 방문을 후원하는 데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 북한 축구팀의 미국 방문 및 친선경기가 성사되면 작년 뉴욕필하모닉의 평양공연에 이어 북미간 체육.문화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미국의 새 행정부는 앞으로 대북 정책을 포함해 일련의 외교 정책을 검토하게 된다”며 “북한의 경우, 지금이야말로 그런 체육이나 문화 교류를 통해 꾸준히 접촉을 늘려 나갈 때”라고 지적했다.

● 美, 對北 불법수출 대만부부 자산동결(1/17)

- 미 재무부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불법 판매한 대만인 부부에 대해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알렉스 H.T. 차이와 그의 부인 튀-츠 쑤 부부가 운영해온 2개 회사가 북한의 첨단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 국영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05년 조선광업무역회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음. 스텐트 레비 재무부 테러 및 재무정보담당 차관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의 조달 경로를 완전히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CIA 北권력층 명단서 김정일 건재..장성택 빠져(1/16)

-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올들어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한의 주요 권력층과 내각 명단에 건강이상설을 불러 일으켰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고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불거진 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CIA 명단에서 빠졌음.
- CIA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북한 주요 권력층과 내각 64명의 명단을 새로 작성해 게재했음. 이 명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총서기, 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장 등 3개 직책을 여전히 유지하며 북한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드러났음.
- 이와 관련, 최근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최근 상황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바 있음. 이어 서열 2위에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무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도 이름을 계속 올렸음. 김정일의 사촌 매부인 양형섭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했음.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 노동당 행정부장은 이번 명단에서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앞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4일 북한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그의 장남인 김정남을 형식적으로 원수로 하고 김씨 일족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등 3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 신문은 이런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중심인물은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며 후계 체제는 실질적으로 장씨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었음.

● “美 서면, 대북특사 고사설”<RFA>(1/16)

-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사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웬디 셔먼 전 대북 정책조정관이 특사직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 출신의 외교전문가를 인용, 16일 보도했음.
- RFA는 이 전문가가 ‘권위있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며 셔먼 전 조정관이 “대북 특사직보다는 국무장관에게 모든 현안에 관해 조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역할을 가진 자문관직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부 출신의 다른 학계 인사도 셔먼 전 조정관이 “그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말을 오바마측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음. 한 소식통은 셔먼 전 조정관이 “자문관을 겸하면서 북한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되, 밑에 대북 협상을



전담하는 수석 협상가를 두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RFA는 전했다.

- 한편 오바마 새 행정부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오바마 취임 후 100일 안에 미국을 자극하거나 시험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2차 핵실험과 같이 도를 넘는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봤다고 RFA는 전했다.
- 그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는 혜택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북간 외교관계 정상화가 미국에 크게 해롭지는 않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폐기 문제에서 확실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는 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새 핵군축 문서 채택 추진” <교도> (1/16)

-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는 내년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검토 회의에서 새로운 포괄적 핵군축 문서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밝혔다. 14일 클린턴 내정자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4~5월 뉴욕에서 열리는 NPT 회의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지를 철회했던 NPT 13개 조항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자료에서 클린턴 내정자는 수정안이 채택되면 약화됐던 국제 사회의 핵확산 금지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했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FMCT)도 승인할 것이라고 클린턴 내정자는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비핵화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 당시 약화됐던 NPT 체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핵군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미국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핵 강국들이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전망이다. 2000년 열린 NPT 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 CTBT 조기 발효, 5년 내 FMCT 협상 완료 등 13개 조항이 채택됐으나 부시 행정부가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효력이 약화됐었다. NPT 검토 회의는 조약이 발효된 1970년 이후 5년마다 열리고 있음.



● “北核 제거위해 다각적 압력 필요”(1/16)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확산과 관련해 긴급한 우려대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압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차기 유엔주재미국대사 내정자가 15일 밝혔다.
- 여성으로서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추진해 나가는 중책을 맡게 될 라이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준되면 유엔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 내정자는 이날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는 것은 가장 주의를 기울일 만한 중대한 안보상의 과제”라면서 “이란은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뿐만아니라 핵확산과 관련된 긴급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 그는 “오바마 당선인은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비확산 및 군축체제를 강화하며 비확산체제를 위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 대응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음. 그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추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하게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압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美 대북 식량 7차분 이달말 北 도착”<RFA>(1/15)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중 7번째 선적분이 이달 말까지는 북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한 관리가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음.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선적이 끝난 4천940t의 이번 식량도 “세계식량계획(WFP) 대신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가 전담해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식량은 ‘옥수수과 콩 혼합물’과 식용유 등으로 이뤄졌음.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은 지난 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해 현재 미국 구호단체들에 의해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주민들에게 배급되고 있음.
- 한편 식량배분 감시를 위한 ‘한국어 구사요원’에 관한 북한과 미국 정부간 협의와 관련, WFP 로마본부의 그레그 배로 북한 담당관은 “조만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RFA는 전했다.

● “美, HEU문제로 대북 대화 중단은 실책”<美전문가>(1/15)

-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칼로스 파스쿠얼 부소장이 주장했다.



- 힐러리는 또 북핵 6자회담 문제와 관련,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종식시키는데 있어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양자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평가했음. 그는 “현재 북한과 진행해 온 협상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밝혔음.
- 힐러리는 또 “터프하고 지적인 외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과 그런 외교적 노력이 결여됐을 때 초래될 실패한 결과를 음미하려면 여러분은 북한과 이란, 중동, 발칸국가들을 지켜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외교정책에서 ‘직접적이고 터프한’ 외교를 취하겠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힐러리는 이와 함께 “비확산의 토대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음.

● 北외무성 “비핵화 보다 대미 관계개선이 먼저”(1/13)

- 북한 외무성은 13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보다는 북미관계정상화가 먼저이며 관계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되었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 이 같은 담화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정상화를 선행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북미관계 및 핵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후 북미간에 이 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



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이고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음.

- 그는 검증문제와 관련,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예외로 될 수 없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남북한 동시사찰 입장을 재확인했음.
- 대변인은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배치),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비핵화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음.

● 北, 오바마 행정부에 첫 공식 메시지(1/13)

- 북한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첫 공식 메시지를 보냈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3일 담화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간 논리적 선후관계와 검증문제 등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집권 후 대북정책 재검토에 들어갈 오바마 행정부에 자신들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기존의 6자회담을 넘어 고위급이 관여하는 양자대화도 폭을 넓힐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기 위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조기에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음.
- 대북 소식통은 “2007년 5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미국측의 연락사무소 제안을 거부하고 보다 높은 급의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미국과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핵문제를 풀어가길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관계정상화 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자신들의 비핵화의 걸림돌로 지적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미관계 정상화없이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고 담화를 맺은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서로 핵보유국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해법을 거듭 촉구하는 의미로 보임.
- 담화는 우선 검증을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해야 하며, 남북한 동시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한에 대한 동시사찰의 범주를 ▲미국 핵무기의 남한 반입 및 배치,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 접근 ▲핵무기의 재반입 및 통과 여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의 마련이라고 명시했음.

● 美전문가들, 부시 ‘北HEU’ 언급에 의문(1/13)

-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덩 체니 부통령에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국에 건넨 알루미늄 관의 샘플과 원자로의 가동 일지에서 발견된 HEU 입자 등을 근거로 북한의 HEU 프로그램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은 이 입자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우라늄농축 활동이 ‘3년 반’ 전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음.
- 그러나 스탠퍼드 대학의 핵 과학자인 강정민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우라늄을 농축한 뒤 20~30년은 지나야 검출 가능한 토륨의 양이 만들어진다”며 “수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는 우라늄 234에서 토륨 230이 생기는 양이 너무 적어서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3년 반 전’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음.
- HEU를 통한 핵개발에 관한 전문가인 스콧 캠프 박사도 핵물질 관련 학술지인 ‘IPFM’(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최신호에서 “몇년 전에 농축된 우라늄 입자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밝혀 강 박사의 의견을 뒷받침했다고 RFA는 전했다.
- 미국 외교협회(CFR)의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검증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 현황에 관한 이런 불확실성이 엄격한 검증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 “WFP, 北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 중단”(1/13)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식량과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을 하지 못한 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아동과 산모, 수유모에게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WFP 방콕사무소 폴



리즐리 대변인이 13일 말했다.

-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까지만 정상적으로 식량을 배급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나눠 줄 식량이 없어 북한 내 WFP 활동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 WFP는 올해 11월말까지 진행할 대북 긴급 식량 구호 프로그램을 위해 5억300여만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7일까지 목표액의 3.8%인 1천926만여 달러를 모으는 데 그쳤다.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계획 50만t 가운데 40만t을 WFP를 통해 배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원된 식량의 배분 상황을 감시할 한국어 구사 요원에 관한 북한측과 이견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이후엔 WFP에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 “北, 국제기구와 AI예방 협력 강화” <RFA>(1/13)

-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 북한은 특히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AI로 사망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AI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AI예방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FAO의 아시아 지역 조류독감 관찰 책임자인 모가리아 스텝하시는 13일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FAO는 북한이 AI를 정확히 진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필요한 장비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정부도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있고 AI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빨리 대응하기 위해 교육도 받았다”고 밝혔다.
- 스텝하시는 “북한이 중국의 가금류를 대규모로 수입하지 않아 AI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매년 12월과 1월에 AI 바이러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은 두달전 7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집트에서 열린 AI 예방과 대책 국제회의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 WHO의 한 관계자도 “북한이 WHO가 주관하는 전염병학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 조류독감 전염병 예방계획을 세우고 WHO의 평가를 받는 등 AI 예방사업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 美보고서, ‘핵무기보유국’에 북한 또 포함(1/13)

-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명시한 데 이어 최근 국방부의 다른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비공식 인정받고 있는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미 국방부 ‘핵무기 관리 리뷰



태스크포스(의장 제임스 솔레진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clear Weapons Management)에서 북한이 복수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시스템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했음.

- 이 보고서는 핵확산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감축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인들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핵을 얻으려는 다양한 동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핵확산을 체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보고서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들과 미사일 전달시스템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이란도 똑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또 보고서는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야기되는 또다른 위험은 핵무기 또는 핵기술을 다른 이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다른 곳으로 (핵무기와 핵기술이) 이전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핵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 “취임식에 北관리 초청계획 없어” <미국무부>(1/13)

- 미국은 오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제44대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관리를 초청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가 12일 밝혔음.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북한과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다”면서 “우리는 취임식에 북한의 관리를 누구도 초청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 이 관리는 또 북한의 관리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북핵 6자회담을 마무리하거나 북미 양자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이나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음. 그는 이와 관련,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워싱턴에 주재한 대사들이 취임식에서 각국 정부를 대표하며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그러한 전통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부시 “北 여전히 美안보에 위협”(1/13)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 안보에 위협스런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게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검증조치를 허용키로한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 HEU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거듭 촉구했음.
- 오는 20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고별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악의 축’으로 언급했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질문은 받고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미국 안보에) 위협하



다”고 지적했음.

-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관련, “북한은 아직도 우리에게 골칫거리”라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북핵 6자회담에서 강력한 검증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력한 검증조치를 허용기로 한 합의사항을 존중,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美, 北의 김계관 방미 요청 거절”(1/12)

- 북한이 20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계기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측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 소식통은 12일 “북측이 지난달 중순께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계획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검증의정서에 대한 이견으로 6자 수석대표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된 직후에 김계관 부상의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음.
- 오바마 측이 김 부상의 방미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북측과 접촉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임.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의 축하사절단을 받지 않아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힐, 오바마 행정부 대북특사 제안 거절(1/12)

-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 특사를 맡으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11일 전해졌음. 외교 소식통들은 현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이 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다 국무부 내 고위직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했음.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힐이 대북 특사가 자신의 현 직책보다 직위가 낮다는 이유로 대북 특사 제안을 거절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북 특사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이 제안한 직책임.

다. 중·북 관계

● 압록강 조난 북한 어민 6명 구조기(1/18)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변방지대에 근무하는 중국 관병



들이 압록강에서 북한 어민 6명을 구조했음. 18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단둥 변방지대는 16일 오후 6시(현지시각) 압록강 랑터우(浪頭)항 인근에서 조난 어선이 떠내려간다는 보고를 받았음.

- 강풍과 영하 20℃의 추위 속에서 동력을 잃고 떠내려가는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어민들은 다급하게 구조신호를 보내면서 구조를 요청했음. 특히 압록강 위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들이 빠른 속도로 어선에 부딪힘에 따라 북한 어선이 침몰위기에 봉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음.
- 단둥 변방지대는 랑터우변방파출소에 대해 즉각 긴급 구조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파출소 관병들은 지시를 받아 곧바로 구조작전에 돌입했음. 이들은 엄동설한과 어둠 속에 떠내려 오는 얼음 덩어리를 헤쳐가며 조난당한 북한 어선 접근에 성공, 밧줄로 묶어 안전하게 랑터우항으로 끌고왔음.
- 이번에 조난된 북한의 ‘신의주 617호’ 어선은 지난 12일 신도(薪島)군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16일 발동기가 고장나면서 표류해왔음. 단둥 변방지대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차례나 구조활동에 나서 압록강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 28척과 북한 선원 80여명을 구조했음.

● “北출신 신세대 화교, 中이주 늘어” <RFA>(1/17)

-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던 북한의 신세대 화교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귀환하지 않고 중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 RFA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 위치한 화교연합회 관계자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화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중국에 정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중에 특히 젊은 이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북한 출신 신세대 화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도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편이 운신의 폭이 넓다”고 이유를 설명했음.
-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일년에 한차례 중국의 친척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 최고 9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 입국하며, 이 체류기간이 지나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90일간 더 머물 수 있지만, 총 180일을 넘기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음.
- 그러나 북한 화교들의 중국 정착 역시 쉽지는 않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에 정착하려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민증이 필요한데,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중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중국 공민증을 취득할 수 있어 공민증 취득 전에는 무국적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 출신 화교들이 중국 공민증이 없다고 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는 않



는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나 북한 화교들의 중국 정착 역시 쉽지는 않다고 RFA는 전했다.

- RFA는 중국에 이주하는 북한 출신 화교들이 늘어나고 북한 주민과 결혼한 화교의 자녀는 북한 공민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화교 2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광복 이후 최고 6만명에 이르던 북한 화교의 수는 2000년 당시 6천명 가량, 현재는 그보다 더 감소한 5천명 이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北고위간부들, 中영화 감상회(1/15)

- 북한 고위간부들은 15일 중국 산서영화촬영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선물한 영화 ‘따뜻한 정’을 감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린 이날 영화감상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근로단체성.중앙기관.문예.언론계 간부들, 류샤오밍(劉曉明) 대사 등이 참석했음.
- 영화 감상에 앞서 강능수 문화상은 “조.중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올해 정초에 진행되는 영화감상회가 ‘조중친선의 해’를 빛나게 장식하고 쌍무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며 두 나라사이의 문화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친선을 두터이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사도 “두 나라가 올해를 ‘중조친선의 해’로 정한 것은 중조사이의 관계가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쌍방이 다채로운 행사들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더욱 추동할 것”이라고 화답했음.
- 영화 ‘따뜻한 정’은 “중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를 통해 혈육의 정은 그 무엇으로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통신은 소개했음. 앞서 중앙통신은 작년 12월 22일 리수함 산서영화촬영소 총장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보낸 이 영화를 중국 주재 최진수 북한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 中외교부 “왕자루이 방북, 들은 바 없다”(1/15)

- 중국 외교부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달 말 방북한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소식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나는 관련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대외연락부를 통해 알아보라”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올해는 중국과 북한의 수교 60주년이자 ‘우호의 해’인 만큼 양국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방중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음.



● “中왕자루이 이달 방북, 김정일 면담 주목”(1/15)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베이징발로 15일 보도했음.
- 신문은 베이징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왕 부장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만난 경우가 많은 만큼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속에서 두 사람간 면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말했음.
-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올해가 북일 수교 60주년이어서 이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될 때 양국 정상급 인사의 방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해 1월 하순에 북한을 방문했으며 당시 김 위원장은 환영회를 열어 주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음. 환영회에서 왕 부장이 김 위원장에게 와인을 권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 이전에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인 2004년 1월과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직후인 2005년 2월 등 중대 사안이 있을 때엔 왕 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음.

● 中외교부 “北中 교류.협력 확대 합의”(1/13)

- 중국은 북한과의 수교 60주년이자 양국간 ‘우호의 해’로 지정된 2009년을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데 북한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13일 밝혔음.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9~12일 방북 기간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장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양측은 북중 수교 60주년이자 양국간 우호의 해로 지정된 올해를 계기로 각 영역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의를 증진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양국관계에서의 새로운 1년을 맞아 심도 있고 전향적인 발전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양국이 우호의 해를 맞아 관련 행사와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의 분야도 다양하고 내용도 매우 풍부하다”고 소개한 뒤 “관련 행사의 일정 등은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北통신, 이시하라 도지사 발언 맹비난(1/16)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라



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의 발언을 “천추에 용납 못할 망발”이라고 비난했음.

- 중앙통신은 ‘주권국가의 존엄을 훼손하는 난폭하고 무엄한 행위’ 제목의 기사에서 “주권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병합’시켜야 한다는 따위의 말을 내뱉은 이시하라는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정치히스테리 분자”라며 “그의 망동은 우리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통신은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우리 인민은 지난 세기에 인간 이하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고 민족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혀 왔다”며 “그런 우리 인민에게 또 다시 이웃나라에 ‘병합’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화국과 우리 민족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고 도전”이라고 밝혔음. 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당당한 주권국가이고 우리의 국토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생활밑천이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재부”라며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지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종종 호전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시하라 지사는 13일 일본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은 북핵 문제나 북한이 세계에 개방되도록 하는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며 이는 미국에도 그럴 것이다. 이미 이와 유사한 잠재적인 동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음.

● 北 ‘마약밀수혐의’ 일본인 5년만에 석방(1/13)

- 북한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해 5년 넘게 억류해온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의 사와다 요시아키씨를 “인도주의적인 조치”에 의해 석방하고 출국시켰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국제법에 어긋나게 마약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하여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 억류됐던 전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부장 사와다 요시아키가 공화국 해당기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의하여 13일 출국했다”고 밝혔음.
- 북한은 지난 2003년 사와다 요시아키가 북한 사람을 매수해 제3국에서 마약을 입수케 한 뒤 북한의 ‘만경봉-92’호를 이용해 일본으로 밀수하려 했다고 사와다씨 체포 사실을 발표했었음.
- 중앙통신은 “해당기관의 조사 결과 일본의 모략 단체가 혐의자(사와다)를 이용하여 ‘만경봉-92’호를 마약 밀수선으로 매도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악랄하게 모해하려던 비열한 음모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사와다씨가 “자기의 범죄와 배후세력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해당기관에서는 그를 인도주의적으로 대해 주었으며 혐의자의 귀국 희망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대



하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 북한 당국이 사와다씨 체포 사실을 발표한 직후 일본의 교도통신은 “같은 이름의 도쿄 폭력 조직원이 나리타 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떠났다”며 사와다씨가 일본의 야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지지통신도 도쿄 경찰청이 사와다 요시아키라는 이름을 가진 42세의 남자가 일본 야쿠자의 3대조직중 하나인 스미요시(住吉)회에 가입한 것을 지난 2000년 확인했다고 보도했었다.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2004년 1월 외무성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 사와다씨의 송환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했지만 불발했음.

● 北, 요도호 납치범 아들 돌려보내(1/13)

- 북한이 13일 자국에 머물고 있던 1970년 요도호 납치사건 범인의 아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음.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북한 고려항공편에는 요도호 납치범 중 한명인 와카바야시 모리아키(若林盛亮.61)씨의 14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었고 그는 이날 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음.
-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이 소년은 납치범 가족들의 지원하고 있는 일본인 보호자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이 보호자는 지난주 그를 만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음. 북한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일본 여권이 없었으나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입국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았음. 납치범 9명의 가족에 대한 일본 송환은 지난 2001년부터 이뤄져 왔으며 납치범의 자녀 중에는 이 소년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요도호 납치범 9명 중 4명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이들의 부인 2명 역시 납치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된 상태라고 전했다.
- 요도호 사건은 9명의 일본 적군파(赤軍派)가 1970년 3월 30일 도쿄발 후쿠오카행 일본항공(JAL)의 요도호를 공중 납치한 사건으로 북한에 생존한 범인과 가족들의 송환 문제가 그동안 북일 관계의 민감한 이슈로 작용해 왔음.
- 한편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고려항공편에는 북한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해 5년 넘게 억류해 온 일본 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의 사와다 요시아키씨도 함께 타고 있었음. 그는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지만, 곧 일본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요시아키씨를 인도주의적인 조치에 의해 석방하고 출국시켰다고 13일 보도.

● 이시하라 “중국이 北 통합하는 것이 최선”(1/13)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 도지사는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며 강경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평화적으로 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종종 호전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시하라 지사는 13일 일본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은 북핵 문제나 북한이 세계에 개방되도록 하는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중국이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며 이는 미국에도 그럴 것이다. 이미 이와 유사한 잠재적인 동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 이시하라 지사는 중국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는 한국은 “아마도” 이에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중국의 일부로 통합되면 이는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이며 문명사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일, 美日과 직접대화 요구”(1/12)

- 지난해 9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사업가 겸 경제학자인 장카를로 에리아 바로리(68)씨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좋다”고 건강 악화설을 부인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 바로리는 로마에서 마이니치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라며 “북한은 미국, 일본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바로리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6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고 김 위원장을 면회하기도 했다.
- 그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 “건강 상태는 좋다. 이전보다 젊어 보이고 강력하게 북한을 통지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김 위원장이 본인이 아닌 대역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바로리는 “정말 엉터리 주장이다. 그는 실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쓸데 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대미 관계에 대해 “북한은 어쨌든 양국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김 위원장은 2000년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다. 미국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만약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핵 문제나 금융제재에서 북미간 협상이 단숨에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 또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방북으로 납치 문제가 크게 진전됐던 것처럼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정상급 대화”라며 “다만 김 위원장의 마음속에는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했던 일본에 대한 일종의 정서가 있다. 일본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바로리는 1975년 이탈리아 국영방송의 베이징지국 개설에 관여하면서 북한에서 김일성(金日成) 당시 주석과 알게 됐다. 김 주석이



사망한 1994년 7월 평양에서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과 처음으로 회담을 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음.

- 그는 이탈리아 고속도로공단 총재 및 베이징대학 등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했음. 현재는 이탈리아 투자기업 등의 사장을 맡고 있음.

마. 기타

● “러’ 대북 중유 지원 이달 말 완료”(1/16)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6일 “북한에 대한 추가 에너지(중유) 지원을 이달 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프레스룸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주어진 몫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이달 안에 중유 공급이 완료되면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라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음 단계로 가는 조건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현재 러시아는 북한에 제공할 3차분 중유 5만 t에 대한 선적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베이징(北京)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직후 미국 측이 주장한 대북 중유 제공 중단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음.
- 당시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당사국 간의 합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라면서 “당사국들은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또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앞으로 동북아 평화안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의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음. 다음 달 중순 모스크바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
- 한편,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양국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한 것 같다.”라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국제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추구보다는 이 위기를 다루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음.

● 베트남 통신회사, 북한 진출 추진(1/15)

- 베트남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비에텔이 북한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관영 사이공해방일보가 15일 보도했음. 비에텔은 투자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북한은 주민에 대한 내부 감시망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전화 통신망 확대를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2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 비에텔은 북한 외에 베트남과 쿠바, 미얀마에서도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미얀마에서는 현지 사무소를 열기 위한 각종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임.
- 베트남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에텔은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진출해 각각 10만명, 5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했음.

● “영국 감리교단, 北식량난 지원”<RFA>(1/15)

- 북한의 겨울철 식량난을 덜기 위해 영국 감리교단이 5,000유로(미화6,600달러)를, 호주 외교통상부가 375만호주달러(미화 250만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음.
-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 감리교단의 스티브 피어스 아시아 태평양 협력관은 “겨울을 맞은 현 시점이 북한 주민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서 이 돈이 “북측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운영하는 라면공장과 빵공장, 온실 관리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음.
- 익명의 호주 관리는 “겨울철인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결정한 예산을 곧 집행하기로 했다”며 “세계식량계획(WFP)에 200만,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00만, 적십자사에 75만 호주달러가 각각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피어스 협력관은 “이번 지원에 한국 감리교단도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협력했다”며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 감리교단도 함께 연계해 북한 주민을 도울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한국 감리교단의 한 관계자는 교단이 오는 29일 인천항을 통해 내북 약 6천벌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在中탈북녀 자녀 초등교육도 못받아”<HRW>(1/15)

- 중국 연변지역에는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남자와 결혼한 탈북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수 천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호적에 등재되지 못해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15일 지적했다.
- 휴먼라이츠와치(HRW)는 이날 발간한 564페이지 분량의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중국인 아버지들이 때때로 탈북녀 어머니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자녀를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HRW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9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가 법률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일부 부모들은 탈북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편법을 쓰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작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연변지역에서 많은 탈북자를 색출, 북한으로 송환했다면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1년전에 마을에 살았던 탈북자 가운데 소수만 남고 일부는 체포돼 북송됐으며 일부는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을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망명과 관련, 2008년까지 한국에 1만3천명 이상, 일본에 100명 이상, 미국에 수십명이 망명했으며 최근 몇년간 캐나다, 일본은 물론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수백명의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2008년에도 북한에선 식품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지만 2007년만큼 급등하지는 않았으면서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해선 전문가의 평가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보고서는 작년 9월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김정일은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건강악화설이 사실이라면 북한 인권문제 및 통치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1/15)

-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15일 정식 서명했음.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음.
-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시행돼 온 방위비분담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게 됐다”며 “오늘 체결된 협정이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음.
- 서명식에는 조병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와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윌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음.
-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협정에 따르면 연도별 분담금



은 지난해 분담금에 2년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
되 연도별 인상에는 4%의 상한선이 적용됨.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
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
원하게 됨.

-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분담금은 7천600억원이며 CPI가 곧 물가상
승률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군사건설비의 연도별 현물전환 비율은 2009년에 30%, 2010년
60%, 2011년 88% 등”이라고 전했다.
-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17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정부는 지
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음. 외교부는 바로 국회에 비
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한.미 양국이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를 상호 통보하면 협정은 발효됨.

● 美, ‘아파치’ 대체전력으로 F-16 한국 배치(1/13)

- 미국은 오는 3월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주한미군 소속의 아파치 헬
기 1개 대대(24대)의 대체전력으로 애초 들여오기로 한 A-10 공격
기 대신 F-16 전투기를 배치기로 했음.
- 합참은 13일 “최근 일부 A-10 기종에서 정비소요가 발생해 미군이
보유한 모든 A-10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불가
피하게 A-10을 F-16으로 대체해 배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고
밝혔음.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미국으로 복귀하며 A-10 공격기 12대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고 발
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올 3월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미국으로
철수하기 전에 F-16 전투기 1개대대(12대)가 한국에 배치.운용될
예정.
- 합참은 “배치될 12대의 F-16 전투기는 아파치 헬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이 없도록 아파치 헬기가 한반도에서 출발하기 전인 3월까
지 배치될 것”이라며 “전력유지와 관련해 한.미간 지속적으로 긴밀
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2개대대, F-16 2개대대, A-10기 27대를
운용중임. F-16은 현재 한반도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 미공군의 주
력 기종으로 운용되는 전천후 전투기로, A-10 공격기와 대지(對
地)공격 능력이 대등한데다 우수한 대공 전투능력 및 기동성을 보
유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향후 A-10과
F-16 전투기를 한반도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으로 철수하는 아파치 헬기 부대는 일단 미국 콜로라
도주의 포트 카슨에 배치된 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중 한 곳으
로 전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합참은 한반도 방위와 이를 위한 2만8천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F-16 대체 배치와 별도로 미국은 올해 안에 미 해군의 MH-53헬기 2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대북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고공정찰기인 U-2의 운용 병력도 보강할 계획.

나. 한·일 관계

● 나카소네 日외상, 내달 11일께 방한(1/15)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방안 논의 등을 위해 내달 11일께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고위 외교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 나카소네 외상의 방한 일정은 금주 한국에서 이뤄진 양국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보다 실용주의적 외교에 입각한 협력방안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나카소네 외상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이뤄지게 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회담에서 일본 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외교 수장은 이외에도 4월초 런던에서 열릴 금융정상회담에의 대처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등도 논제로 삼을 예정.

● 한·일 정상, '북핵협력' 재확인(1/12)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12일 북핵문제에서 양국간 연대를 공고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한·미·일 3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북핵현안에서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이날 양 정상의 북핵관련 언급이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런 입장이 오는 20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특히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적인 대미외교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체제가 절실하다는 평가임.
- 우리측 당국자들은 “오바마 시대에도 북·미 대화는 6자회담틀 안에서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 日외무성 “한·일 셔틀외교 공고히 했다”(1/12)

- 일본 외무성은 1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음.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를 수행해 방한한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奉久) 일본 외무성 부보도관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방문한 아소 총리가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정상 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음.
- 가와무라 부보도관은 “아소 총리와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면서 “아소 총리가 올해 중으로 다시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두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며 “새 시대의 양국 관계하에 두 정상은 글로벌 공동체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음.
- 가와무라 부보도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언급, “6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며 두 정상은 의장국인 중국과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아소 총리의 지원 요청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도 많이 있다”면서 “북한은 이 문제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가와무라 부보도관은 ‘영토나 과거사 관련한 언급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짧게 답했음.

● 한일 젊은층 교류확대 어떻게 진행되나(1/12)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12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현재 500만명 수준인 양국 인적교류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음. 두 정상은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른바 ‘가깝고도 먼 나라’로 통하는 한국과 일본이 실질적으로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교류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음.
- 한국과 일본은 젊은 층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우선 작년까지 3천600명이던 관광취업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규모를 올해부터 두배인 7천200명으로 확대했음. 또 한국의 이공계 학생이 일본에서 5년간 양국 정부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도 10년간 연장하기로 했음.
- 1999년 시작된 이 사업으로 1년에 100명 안팎의 이공계 학부 학생이 일본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큰 호응을 얻었지만 작년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됐었음.
- 한·일 정부는 또 6개월~1년 기간 상대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음. 작년까지는 한



국 대학생 200명이 일본에서 단기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그 규모가 300명으로 확대되고 일본 대학생 200명에게도 한국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이밖에 민간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프로젝트에서는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게 되는데 양국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가 이달 17일 도쿄에서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준비모임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 개괄적인 논의를 한 뒤 양국의 학자들이 모이는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 기타

● 라트비아 총리 18~21일 방한(1/15)

- 이바스 고드마니스 라트비아 총리가 18~21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고드마니스 총리는 방한기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며, 한승수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물류, 산림 등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유럽연합(EU), 발트지역 정세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
- 또 세계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과 기업시찰, 국제물류협회 및 대한목재협회 회장과 면담 등도 예정돼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라트비아는 인구 230만의 발트지역 중심국가로 3개의 부동항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발트지역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북유럽과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동유럽 사이의 물류 중심지다. 전 국토의 45%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산림자원도 풍부함.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드마니스 총리의 이번 실무 방문은 1991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최고위급 인사 방문”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및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북핵기획단장, 15일 평양 방문(1/13)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15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3일 “황 단장이 불능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미사용 연료봉 구매 협의를 위해 14일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15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돌아오는 날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황 단장은 영변을 방문해 연료봉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과의 만남 것



[참고 1]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일지> (연합뉴스, 1/17)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남한에 대한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경고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17일 성명 발표로 더욱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음.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비난하며 “공공연한 대결 선언”이라고 단정해 앞으로 대남 대응 수위를 점점 높여갈 것으로 보임.

다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대응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일지.

- ▲ 2008. 1. 1 = 북한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 ▲ 2.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
- ▲ 3. 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 “망동”이라고 비난
- ▲ 3.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에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 ▲ 4. 1 = 북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 ▲ 4. 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 통해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 ▲ 5. 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 7. 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 ▲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남한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 ▲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에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 ▲ 8. 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발표



- ▲ 8. 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 10일부터 실시” 발표
- ▲ 9. 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 ▲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 중단 요구
- ▲10. 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10. 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고 주장
- ▲10.16 = 북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 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0.28 =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 ▲11. 6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황 점검
- ▲11.12 =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전화 통지.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 직통전화 단절 발표
- ▲11.22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와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 없다”고 반발
-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선별 추방 통보
- ▲11.25 = 북 노동신문,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도발 책동” 비난
- ▲11.27 = 북, 12월 1일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 ▲11.28 =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 ▲12. 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차단조치 실시
- ▲12.17 = 북 국방위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개성공단을 방문해 “12.1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
- ▲12.24 = 북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



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 ▲2009.1.1 = 북,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
- ▲ 1.17 =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

zoo@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1/17/0511000000AKR20090117066900014.HTML>



[참고 2] <李대통령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연합뉴스, 1/12)

(서울=연합뉴스) 새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10월 이래 나와 아소 총리는 벌써 다섯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소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소 총리의 이번 방한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주요 재계 지도자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양국의 재계 지도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양국간 협력을 말미 아니라 실천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아소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한일간 경제협력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특히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에 일본 투자구매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며 뒤이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포럼 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미 등 몇 곳을 부품 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본 기업들이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후쿠오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금융 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에서 금융 시스템 개혁,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안정화포럼 가입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한일 금융당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한 것은 양국은 물론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아소 총리와 나는 우주, 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현재 500만명 수준의 양국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취업사증제도,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대학생 교류 등 젊은세대 간 교류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차



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국제 현안에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세계 무대에서 지정학적 협력관계를 넘어서 경제, 외교적 동반자로 거듭 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두 정상의 우의와 신뢰가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증진으로 이어지고, 양국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1/12/0503000000AKR20090112072500001.HTML>



[참고 3] <아소총리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연합뉴스, 1/12)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로 새해 초에 한국을 방문할 수가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과는 작년 10월 이래 세계 각지에서 매달 만나뵙고 있습니다. 이만큼 빈번하게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돈독하게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간 성숙된 파트너십 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먼저 국제사회에서 함께 공헌하는 일한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개발협력은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세계 안보상 지극히 중요한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협력에 있어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경제에 관해서는 아시아가 세계에 있어 열린 성장센터로서 세계경제, 앞으로의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제 생각에 이 대통령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주의의 경향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있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는 양국의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와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부터는 한국도 똑같은 납치문제를 안고 있다. 이 현실을 직시해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협력과 함께 양국간 가일층의 관계 심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과는 양국의 경제계 협력을 더욱 지원해주기 위해서도 EPA(한일FTA) 협상 재개를 위한 검토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가하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포럼 개최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의 경제계 리더들께서도 다수 동행해 어제 이 대통령과 한국의 경제계 여러분들과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 나아가 세계 비즈니스의 무대에서 힘차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서틀정상외교가 정착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올해 중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께서 방일해 주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통령과 협력해 올해를 일한 관계가 비약하는 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새해 벽두부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이 대통령 각



하를 비롯한 한국 정부, 경제계, 그리고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1/12/0503000000AKR2009011207610001.HTML>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